

海外情報

○ 파키스탄 Fauji, DAP 공장 무기한 폐쇄 결정

파키스탄의 Fauji Jordan 비료회사(FJFC)는 공장 운영상 늘어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01년 9월말에 Port Qasim에 있는 445,000톤/년 DAP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와 FJFC간에 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이 공장의 영구적인 폐쇄는 정부측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 공약 준수를 정부가 이행하는데 불허한 테서 기인한 이 프로젝트의 실패로, 파키스탄의 신용도를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FJFC는 1999년 후반에 DAP 생산을 시작하였고 파키스탄에서는 유일한 DAP 생산업자 이었는데, 이 공장 가동개시 이후로 계속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 250/톤 가격으로 최소 DAP 수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합작투자 회사(요르단 인산 채광 회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인산을 공급한다.)를 설립한다는 정부의 공약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격 정책은 결코 시행되지 못했고 이러한 보호조치 없이 DAP의 생산은 인산을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비경제적이다.

FJFC는 약 300,000톤/년의 DAP를 생산하였고 2001년 6월말까지 6개월간에 Rs 1,713bn의 손실을 보고하였으며, DAP 공장 가동 이후에 지금까지 Rs 5,147bn에 이르는 손실을 누적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JFC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2000년도 한해에 대해 Rs 2,361bn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DAP 가격의 최소 수입가격을 보장했던 정부의 실패 원인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정부는 보상금으로 5년간에 걸쳐 총 Rs 6bn을 지불하기로 제의하였다.

FJFC는 정부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고 양자간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Technimont이다. 입찰자들은 Hydro나 Kaltenbach 혹은 Uhde ammonium nitrate 그레눌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계약은 2002년 2/4분기에 있을 예정이다.

이 단지는 AN/CAN을 약 840,000톤/년 생산할 것이다. 이 중의 일부는 빠른 확장일로에 있는 이집트 시장에서 소요되며 그 중의 일부는 수출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현행 가동상태에 있는 AN 생산능력의 일부는 약 40년이 되었다. 그래서 Abu Qir IV 프로젝트는 로컬 공급의 장기적 보증으로서 간주될 것이며, 2004년 2/4분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 Fertilizer Week 27, August 2001 >

○ 칠레 SQM, 특수 가리의 판매를 예고

칠레의 SQM은 2001년 하반기에 특수 가리의 더 많은 판매량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가격은 계속 부진한 상태이며,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 황산가리의 생산비를 더 절감시킬 것을 희망한다고 SQM은 말하였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가 희망했던 대로 이 생산비를 \$ 60/t로 낮추려는 목표는 2001년 상반기에는 달성하지 못했다. 생산원가는 \$ 74/t이었다고 회사는 말하였다.

회사가 특수 비료들의 판매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특히 황산가리가 대부분 약속한 원가절감을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회사의 판매량은 전반기와 비교하여 2001년 하반기는 15~2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SQM의 수석 경영자 Patricio Contesse가 말했다.

더욱이 회사는 단지 1개월분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산에서 원가절감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특수 비료의 판매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2001년 상반기 기간에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으로 수출된 가리 판매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유로화와 미 달러간의 하락 때문이다. 이 사실은 유럽시장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의 총 매출은 2000년 상반기 16.2백만달러에 비하여 13.6백만달러에 달했다.

< Fertilizer Week 3, September 2001 >

↳ 우즈베키스탄, 비료분야 민영화

우즈베키스탄 정부재산관리위원회(USPC)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5개 국영 비료회사에 대하여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 정비를 마치고 그 기구를 설립하였다.

부분적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PO Azot Fergana, Navoi Azot, 그리고 Chirchik Production Association 및 인산 생산 업자, Ammophos Almalyk, Samarkand Chemical 공장이다. 이들 회사에서 45~49%의 지분들이 국내투자자 및 국제투자자들에게 배분될 것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회사의 51%의 지분관리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민영화를 위한 첫 단계는 2001년 5월에 실시되었는데, 이때 외국 경제활동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은행은 FerganaAzot 공장의 개혁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Dutch ING Bank NV의 체코공화국과의 56,600만달러의 차관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이 개혁은 질산과 질산암모늄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추가시설 건설이 포함된다.

체코공화국의 MBNS International이 이 프로젝트의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 Fertilizer Week 3, September 2001 >

○ Gazprom, 헝가리에서 비료분야 확장

Gazprom은 최근에 헝가리의 비료분야에서 위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로서 화학 및 질소 비료 생산업자인 Tisza Vegyi Kombinat Rt(TVK)에서 그 지분을 증가시켰다.

Gazprom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된 오스트리아의 CE Oil & Gas(CEOOG) 회사는 TVK에 있어서 그 지분을 15.74%까지 증가시켰다.

이 거래에 있어서 TVK의 Gazprom의 주식 소유는 총 40.58%인 것으로 밝혀진다.

헝가리의 오일 및 개스를 독점하고 있는 MOL은 추가 17.6%의 주식을 매입하여 33%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며 이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MOL 소식통에 의하면 Gazprom이 헝가리 에너지 분야로 더 진출하는 것에 대해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Gazprom의 이러한 확장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로 MOL은 최근에 HUF 4,184(주당 15.21달러)의 최초 오퍼 가격에 공모하고 있는 TVK 주식에 대한 일반공

###

캄포텍스의 2001년 캐나다 가리 수출은 지금까지의 중국용 등에 이어 앞으로 중국과 브라질 등 남미용이 새롭게 거론됨과 동시에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용도 나오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금년 년간 캐나다 가리 수출은 전체 575만톤이 되고, 사상 2번째의 수출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캄포텍스는 전망하고 있다.

캄포텍스는 금년 러시아 제품과도 판매 협정을 맺고 러시아 제품의 수출 취급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년간 200만-250만톤 정도가 된다는 설도 있고 단순히 이것을 합하면 총 합계는 800만톤이 넘는 수출이 되어 캄포텍스의 세계 가리 수출 취급 시장 점유율은 확대된다. 어쨌던 간에 캄포텍스의 가리 수출량은 캐나다 제품을 축으로 판매업무 협정에 의한 러시아 제품을 포함하여 세계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 시황 문제에서는 수출의 순조로운 기록하에 공급타이트면 때문에 캄포텍스로서는 당면 가격인상 자세를 무너뜨릴 일은 없다고 보인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8월 27일 >

○ 중국의 WTO 가입과 DAP 수입 전망

중국이 금년 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내년의 인산비료(DAP)의 수입량은 540만톤 정도이고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리라고 보는 견해가 번지고 있다.

이는 관련업계가 일전에 일본에 온 미국 IMC 대표의 얘기를 바탕으로 전한 것이며, 중국이 실제로 그러한 물량을 내년에 도입할 것인지가 지금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미국제품 등 DAP 수입량이 금년의 수입 할당량이라고 한다면 200만톤으로 작년에 비해 반감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면 무역자유 즉 문호개방의 방향이 되어 수입할당 등에 따른 국내 면에서의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DAP에서는 금년보다 훨씬 증대하여 년간 540만톤 정도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미국대표들은 이미 중국측의 의향을 타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内外 관계자들은 이러한 물량의 수입이 국제 수급면에서도 사실로 될 것인지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oo

중국의 미국제품 등 금년의 DAP 수입은 이미 할당을 상회하는 200만톤 정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540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2배 증가 이상이다. 이러한 수입의 한편에서 중국은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인산비료 공장을 폐쇄하여 국내의 수급 균형을 취할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견해다.

중국의 WTO 가입은 금년 11월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입에 따라 비료관계의 자유화로 이어져 DAP 등 수입량의 증가로 이어질지가 의문시된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8월 23일 >

○ 인도네시아 긴급 요소 수입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체인 푸스리는 국내 수요의 단기 충당을 위해 해외의 요소 5만-7만톤 상당을 긴급 매입해야 할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업계측에서는 “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치 않고 상황은 불투명하다 ”라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조업체인 아세안·아체 등이 원료 개스 구입의 어려움 때문에 요소의 생산이 장기적으로 중지상태이고 수출에서도 불가항력을 선언하여 국내면에서도 수급이 어렵게 된 지역도 있다고 한다.

푸스리가 국내용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긴급히 해외 제품 수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국내용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움직임인 것 같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아직 수입 거래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푸스리의 긴급 요소 수입 문제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다. 이 문제가 불발로 흐지부지 될 것인지, 이것 또한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동향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9월 4일 >

♣ 임생은 불확실한 형태이다.

< 셰익스피어 >